2차시
오르세 미술관에서 배우는 전략적 의사결정

학습 내용

1. 하마터면 탄생하지 못할 뻔한 미술관, 오르세
2. 기업 경영 현장의 의사결정 어려움
3. 전략적 의사결정 어떻게 해야 할까?

1. 하마터면 탄생하지 못할 뻔한 미술관, 오르세

- 파리의 명물 오르세 미술관은 사실 미술관이 아니라 만국박람회 당시 과시용 건축물로 지어져서 얼마간 사용된 후 문을 닫은 기차역이었다.

- 철거의 위협에 처해졌던 기차역은 당시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지스카르 데스텡의 주도적인 전략적 의사결정을 통한 제 관련인사들의 합의 덕분에, 철거가 아닌 미술관으로서의 재탄생이라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

- 오르세 미술관은 시기적으로는 루브르와 퐁피두에서 전시되고 있는 미술품들의 사이 기간에 해당하는 시기의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2. 기업 경영 현장의 의사결정 어려움

- 과거 기업 경영은 똑같은 제품을 남(경쟁자)들보다 더 싸게 만들거나(cost leadership), 비싸더라도 남들보다 더 좋은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differentiation)으로 족했다.

- 하지만,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했으며, 경쟁이 치열해 진 현대에는 단순히 더 싸게 혹은 더 낫게 만으로는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없게 되었다.

- '더 싸게'와 '더 낫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쫓아야 하는 현대 기업 경영 상황에서 대두된 것이 모순되는 두 가지 상황을 모두 충족시키는 이른바 '모순경영(paradox management)'이다.

3. 전략적 의사결정 어떻게 해야 할까?

- 전략적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의사결정을 주도적으로 빠르게 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리더의 제 역할이 필요**하다.

- 조직 구성원들 간 오픈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활성화 된 팀워크와 현장 위주의 의사결정구조**가 이뤄져야 한다.

- 의사결정에 대한 명확한 책임과 권한 정리, 결정된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구성원들에게 전파**되고 그를 기반으로 하여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세워나갈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